

민주·평화 도시 광주 인권사업 자리잡아간다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에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정

국내외 인권도시 확대 기여... 국비 3000만원 지원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광주의 인권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광주시는 7일 "한국관광공사의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에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및 사회·문화 관련 유망 컨벤션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인권관련 행사로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국내외 인권도시 및 기구·단체, 활동가, 시민 등이 참여해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 인

권의제를 논의하며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정책을 개발하는 국제포럼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전 세계의 인권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권단체, 활동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포럼 참가자 규모가 1800명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 포럼이 UN인권이사회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 및 국내외 인권도시 확대 등

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국내 인권포럼으로는 최초로 중앙부처와 공동주최하고 국비지원을 받게되면서 포럼의 국내 위상이 강화되고 향후 세계적인 국제행사로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럼은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광주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의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동구 지산동 '동계마을' 선정

광주시 동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19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공모에 지산동 동계마을이 선정돼 국비 등 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동계마을은 광주시 지정문화재 오지호 가(家)가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문화재보호를 위한 현상 변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됐지만 높은 노후불량주택율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동구는 지난 1월부터 사업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한 끝에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동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5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지원 ▲재난대비 노후시설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휴먼케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오지호 가와 지산유원지 보리밭거리 등 인근 역사·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특색 있는 새뜰마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봄바람 휘날리며~ '벚꽃콘서트' 광주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최근 운천저수지에서 벚꽃콘서트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했다. 시민과 함께 한 공연에는 팬타곤, 지니로니, 최영선의 어울림 등의 지하철 예술문화 공연진들이 흥겨운 행사를 펼쳤다.

중증 장애인 이동수단 충전기

공공시설 등에 60곳 추가설치

광주시는 7일 "중증 장애인 및 노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를 타고 외출에 나섰다가 배터리가 방전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문화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60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청, 구청 민원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회 등 24곳에 설치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시재생 실무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市-공동체센터, 청년코디네이터·활동가 등 이론·실습

광주시와 광주도시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교육 실무네트워크를 5월부터 운영한다.

도시재생공동체 센터는 도시재생 청년 코디네이터와 도시재생 사회공헌 활동가 양성, 제5기 광주 도시재생대학 등 3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재생 청년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은 10~26일 신청을 받아 5월부터 4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이론 강의·실습·현장 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전남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지역 모든 대학으로 확대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시재생 사회공헌 활동가 양성 과정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문화 재교육, 도시재생 이론 교육, 도시재생사업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은퇴 중장년 20여명을 모집하고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한다.

도시재생대학은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도시재생 이론 교육, 아이디어 도출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60여명을 모집해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성공 개최 함께 해요"

선수·연맹 관계자 등 2만 여명

광주·전남 대중교통 무료 이용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협약식'을 했다.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대중교통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협약식에는 조직위,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전남 버스업체 10곳도 함께 했다.

이들은 수영대회 성공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대회 기간 선수단이 광주와 인근 전남 사군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무료이용 대상은 조직위에서 발급한 AD카드를 소지한 선수단·심판진·미디어진·FINA(국제수영연맹) 관계자·운영 요원 등 2만여명이다.

이용 기간은 본대회가 열리는 7월 12~28일, 마스터즈대회가 열리는 8월 5~18일 총 31일이다. 오픈 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에서는 7월 13~19일, 8월 7~11일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기간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폐회식장과 선수촌, 주경기장 등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시민들에게 개인 교통수단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회 기간 안전한 외식환경 위한

노후시설 등 음식점소 환경개선

광주광역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대비해 안전한 음식점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의 주방환경기설 청소, 교체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식사료 취급 일반음식점으로, 관광지 및 국제행사 개최지역, 음식문화 특화거리 주변 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업소별 최대 100만원,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음식점 내 노후주방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각 자치구 위생과를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안내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노후 주방 후드·덕트, 환풍기 기름 찌꺼기 등은 식중독 발생 등 위생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음식점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